海印

한국의 보물, 해인〈37〉

필자 소개: 김탁 박사님은 1963년 생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설 한국학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증산교단 미륵신앙의 성립과 전개」외 40여 편의 논문과 『조선의 예언사상』(2016), 『일제강점기의 예언사상』(2019), 『정감록과 격암유록』(2021), 『증산사상과 한국종교』(2022), 『시루와 배』(2023) 등 12권의 책을 저술한 신종교 학계의 저명한 연구가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전라북도 무주 산골에 거하시면서 오직 학문 연구에 매진하시는 김 박사님의 글은 독자님들에게 유익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정감록』의 주인공은 왜 정씨일까?

15세기까지 한국 사회에 출현했던 예언서나 비결서의 제목들은 대체로 비기(秘記), 비사(秘詞), 유훈(遺訓) 등이었다. '기(記)'와 '사(詞)'는 한문학의 한 분야이고, '훈(訓)'은 예언서가 가진 도덕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정감록』이라는 제목은 '사실을 기록한다.'라는 뜻의 '록(錄)'으로 되어 있다.

또한 『신지비사(神誌秘詞)』, 『도선비기(道詵秘記)』, 『남사고비기(南師古秘記)』 등에 언급되는 신지, 도선, 남사고 등은 비결서의 저자를 가리킨다. 물론 신화적이거나 역사적 인물인 그들이 직접 비결서를 저술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을 가탁(假託)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감록』의 저자로 믿어지는 정감(鄭鑑)은 실존 인물도 아니며, 신화적 인물도 아니며, 단지 가공의 인물이다.

왜 하필이면 정씨(鄭氏)라는 성(姓)을 가진 가공인물을 내세웠을까? 그 이유는 조선왕조의 개국(開國) 때부터 유달리 정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반왕조적인 사건을 주동했다는 역사적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조선왕조의 개창자인 이성계(李成桂)의 회유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훗날 태종(太宗)이 되는 이방원(李芳遠)의 사주로 개성(開城)의 선죽교(善竹橋)에서 살해되었던 정몽주(鄭夢周, 1337 - 1392), 왕위계승권을 둘러싼 왕자들의 난에 연관되어 희생되었던 정도전(鄭道傳, 1337 - 1398), 선조(宣祖) 때 뛰어난 재능이 있었지만 당쟁(黨爭)에 휘말려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안군(鎭安郡) 죽도(竹島)로 도망쳐 자살했던 정여립(鄭汝立, 1546 - 1589), 영조(英祖) 때 밀풍군(密豊君) 탄(坦)을 추대하여 왕통(王統)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참수된 정희량(鄭希亮, ? - 1728) 등이 조선왕조에 반대한 대표적 인물들이었다.

따라서 조선왕조의 멸망을 예언할 인물로는 정씨 성을 가진 사람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 대중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정감(鄭鑑)의 이름인 감(鑑)은 거울을 뜻하므로, '과거, 현재, 미래를 환하게 비추는 마술적인 거울'과 같이 '미래를 투시하는 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짐작된다.

해도(海島, 섬)에서 출현한다는 진인(眞人)

영조 24년(1748) 충청도 청주(淸州)와 문의(文義)에서 적발된 괘서(掛書) 사건의 관련자인 오명후(吳命垕)가 소장했던 어떤 점서(占書)의 끝부분에 부록으로 「도선비기(道詵秘記)」가 실려 있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다. 백승종의 「18~19세기 『정감록』을 비롯한 각종 예언서의 내용과 그에 대한 당시대인들의 해석」(1999)이라는 글에 의하면, 고려왕조의 성립 · 융성 · 멸망과 조선왕조에 의한 세력 교체가 주된 내용을 이루었던 기왕의 「도선비기」와는 달리 이 「도선비기」는 조선의 멸망이 중점적으로 거론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도선비기」에는 용두(龍頭)와 사미(蛇尾)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왕조의 변혁이 일어날 시기를 무진년(1748)과 기사년〈己巳年, 영조 25년(1749)〉 사이로 예언한 것이었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왕조를 건립한 태조(1392~1398) 때부터 제25대 왕 철종(1849~1863)의 통치기에 이르는 470여 년간의 왕조 역사를 담은 기록물이다. 사진은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 사진=문화재청

또 기사년에 일어날 변고에 대해 『영조실록』 영조 24년(1748) 음력 5월 23일조에는 "왜인(倭人) 같지만 왜인이 아닌 것이 남쪽에서 올라오는데,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닌 궁궁(弓弓)이 이롭다."라는 내용도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의 주범인 이지서(李之曙)는 "실은 왜인이 아니고 거짓으로 왜인의 모양을 꾸며 가지고 온다. 이들은 무신년(戊申年, 1728)의 여당(餘黨)들로서 해도(海島)에 가 있던 자들이다."라고 진술했다. 이 외에도 이지서는 "울릉도 건너편에 황진기(黃鎭紀) 등 무신년의 여당(餘黨)이 있다."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나아가 이지서는 "무진년(1748, 괘서를 붙인 해)의 일은 알 수 있고, 경오년(1750)에는 즐거움이 당당하다."라고 예언하고, "'사(事)자'는 난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이고, '락(樂) 자'는 즐거운 일이 있다는 것이다."라고 「도선비기」에 있는 특정 구절을 풀이하기도 했다.

이들은 영조 25년(1749)에 반란을 일으키면서 장차 왕으로 모시게 될 사람이 바로 진인(眞人)이라고 주장했다. 이 진인에 대해 이지서는 자기의 동료들에게 "금산(金山) 봉계(鳳溪)에 사는 정가(鄭哥)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침에 태어나서 저녁에는 말을 할 수 있었다. 키가 장대하여 삼척동자가 되었으므로, 기이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밤에 그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는데, 이것이 재작년(1746)의 일이다. 지금은 그 거처를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저절로 알 방법이 있다.", "금산에 봉황이 있어 알을 낳았는데, 하루 만에 그것이 저절로 터졌으니 실로 재변(災變)이다." 등의 말을 했다고 전한다. 이처럼 이 사건의 주모자들은 새 왕조의 건국자를 정씨(鄭氏)라는 진인(眞人)이라고 주장했으며, 그를 후원할 세력이 바다 가운데 섬에 있다고 부연하여 설명하였다.

또 이 「도선비기」에는 조선이 306년만인 숙종 24년(1698)에 망한다는 예언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지서는 조선왕조의 역수(曆數)로 이를 다시 해석하여 조선왕조의 수명이 380년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괘서에 실었다고 진술했다. 결국 이지서의 비결서 풀이에 의하면 영조 48년(1772)을 고비로 조선왕조의 수명이 다할 것이므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었다.

영조 31년(1755) 2월 '나주(羅州) 괘서(掛書)사건' 때에도 해도기병설(海島起兵說)이 유포되었다. 당시 나주에 유배되어 있던 윤지(尹志), 윤광철(尹光哲) 부자(父子) 등은 거사를 준비하면서 괘서 사건을 일으켰다. 이때 주동자들 사이의 대화에서 윤지가 "비기(秘記) 가운데 명년(明年)에 안성(安城)과 죽산(竹山) 사이에 시체가 쌓여 산과 같이 되고, 성세(聖世)에 인천(仁川)과 부평(富平) 사이에 밤에 배 1천 척을 댄다."라고 말했다. 이는 현전하는 『정감록』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또 윤지는 지난 무신란(戊申亂) 때에는 너무 쉽게 육지에서 출병하였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비판하면서, 이제는 해도(海島)에 거점을 두고 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조실록』 영조 31년(1755) 음력 3월 계미일조에 보면, 윤지는 "먼저 탐라(耽羅)에 거점을 구축하여 연해에 출몰하면서 세선(稅船)을 잡아들이고, 진도(珍島)로부터 곧바로 강화에 도착하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하여 새로운 해상공격로를 설정하였다.*

김탁 박사 / 신종교 연구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 말씀하시기를《9회》

목차

1. 선불가진수어록(仙佛家眞修語錄)
2. 진삼귀의처품(眞三歸依處品)
3. 무아경지품(無我境地品)
4. 여래비장품(如來祕藏品)
5. 겁수품(劫數品)
6. 감로해인품(甘露海印品)
7. 선지식품(善知識品)
8. 여래출현품(如來出現品)
9. 여래능력품(如來能力品)
10. 불법근본품(佛法根本品)

3. 무아경지품(無我境地品)

(지난호에 이어서)

〈화엄경 권 15 (華嚴經 卷 十五)〉

深入如來正法藏 不動如山智如海
심입여래정법장 부동여산지여해

여래의 바른 법에 깊이 들어가면 부동하여 흔들리지 않음이 산과 같고 지혜가 바다와 같다.

亦如大雨除衆熱 爲渴法衆生 作甘露漿 역여대우제중열 위갈법중생 작감로장

또한 큰 비와 같아서 중생의 열을 제하며 법에 목마른 중생을 위하여 감로장을 짓는다.

如八味水 充滿渴者 如來不出世 無有涅槃 여팔미수 충만갈자 여래불출세 무유열반

팔미수와 같아서 목마른 자를 채워준다. 여래가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땐 열반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제 무아(無我)에 이르는 법문(法門)을 알아보았으니 이어서 여래께서 비밀히 감추신 진심보처(眞三寶處)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4. 여래비장품(如來祕藏品)

… 불경(佛經)을 가리켜 대장경(大藏經)이라 한다. 대장경이란 비밀히 감춰져 있는 경전이라는 뜻이다. 그 비밀이란 무엇에 대한 비밀인가? 여래(如來)에 대한 비밀이다. 그러므로 여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대장경(大藏經)을 푸는 열쇠가 된다. …

불경마다 곳곳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으니 여래비장(如來秘藏)이라는 말이다. 여래께서 비밀히 감춘 뜻이란 무엇일까? 불경(佛經)을 가리켜 대장경(大藏經)이라 한다. 대장경이란 말 자체에서 우리는 불경 속에 비밀을 감추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비밀이란 무엇인가? 석가세존은 왜 미륵부처님의 출현에 대하여 비밀로 숨기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미륵부처님은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분을 가리켜 삼존(三尊)이라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열반경 권 8 (涅槃經 卷 八)〉

若有分別 三歸依者 我當爲作一歸依處 無三差別 약유분별 삼귀의자 아당위작일귀의처 무삼차별

만약 삼귀의(三歸依)를 분별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마땅히 한 귀의처를 지어 셋이 차별이 없이 하리라.

개운조사께서
도장산 심원사(道藏山 深源寺)에서 지리산으로 가실 때
손가락으로 바위에 쓴 글씨 "洞天(동천)"

진실한 삼귀의처에는 셋이 차별이 없으며 한 귀의처 안에 셋이 있다. 이자삼점(伊字三點, ∴點 = 三神一體 一人出)

於生盲中爲作眼目
어생맹중위작안목
눈 먼 중생에게 눈을 뜨게 해주고

不當爲諸聲聞緣覺 作眞歸依處
부당위제성문연각 작진귀의처
다시 마땅히 모든 성문과 연각들을 위하여 진짜 귀의처를 짓느니라.

善男子 如是菩薩
선남자 여시보살
선남자야 이와 같이 보살은

爲無量惡諸衆生 及諸智者而作佛事
위무량악제중생 급제지자이작불사
한량없는 악한 모든 중생 및 모든 지혜로운 자를 위해서 불사(佛事)를 짓느니라.

위의 기재를 보아 불사(佛事)란 곧 진짜 삼보처를 짓는다는 것을 뜻하며, 절이나 탑을 세우고 불상이나 불화를 조성하는 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云何三事 與我一體
운하삼사 여아일체
무엇이 세 가지 일이냐. 나와 더불어 한 몸이다.

善男子 我示三事 即是涅槃
선남자 아시삼사 즉시열반
선남자야 내가 세 가지 일을 보이면 이것이 열반이다.

如來者名無上士
여래자명무상사
여래를 이름하여 무상사라 한다.

삼신일체의 미륵부처님이 나오셔야 열반이 있고 여래도 있으며 무상사가 된다는 말이다.

譬如人是 頭最爲上
비여인신 두최위상
비유하자면 사람의 몸 중에서 머리가 가장 위가 되는 것과 같다.

佛亦如是 最爲尊上 非法僧也
불역여시 최위존상 비법승야
부처(佛)가 이와같이 가장 높이 된다. 법(法)과 승(僧)은 아니니라.

若有衆生能信如是大涅槃經
약유중생능신여시대열반경
만약 중생이 있어서 능히 이와 같이 대열반경(大涅槃經)을 믿는다면

其人則 能自然了達三歸依處
기인즉 능자연료달삼귀의처
그 사람인즉 자연히 진짜 삼귀의처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何以故 如來秘藏 有佛性故
하이고 여래비장 유부성고
왜 그러냐 하면 여래께서 비밀히 감춘 곳에 불성(佛性)이 있는 연고라.

於未來世 我身即當 成就三寶
어미래세 아신즉당 성취삼보
미래세(未來世)에 내 몸이 곧 마땅히 삼보를 성취하리라.

是故 聲聞緣覺之人及餘衆生 皆依於我 恭敬禮拜 시고 성문연각지인급여중생 개의어아 공경예배

이런 고로 성문이나 연각의 사람 및 나머지 중생이 다 나에게 의지하여 공경 예배를 하느니라.

여기서 다 나에게 의지한다고 한 것은 삼세(三世)의 부처는 다 한 이름을 쓴다 하였으므로 미래세에 오실 미륵 부처님을 빗대어 「나」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비밀 속에 감추었던 것이 삼천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삼천 년간 수억의 승려(僧侶) 불자(佛者)들이 대장경을 보았으련만 왜 이것을 못 보았을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미륵부처님이 나오시지 아니했을 때 이 비밀이 드러난다면 누가 가짜 삼보를 의지하여 부처를 믿을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인공이 나오기 전에는 이 비밀을 숨겨 놓는 것이다. 삼천 년에 걸쳐 우리의 조상 선인들께서 믿고 전해 오셨기에 이제 주인공을 찾을 때가 되니 인연이 닿아 감추었던 비밀의 자물쇠가 풀리게 된 것이다.

미륵부처님께서 출현하시면 온 세상 사람이 다 부처가 된다 했는데 이 말이 참인지 꿈인지 알지 못하여 읽고 또 읽어 보아도 사실이 틀림없으니, 이 몸으로 극락세계를 만난다는 일을 생각하니 그 기쁨을 어찌 다 표현하리요.

〈열반경 권 8 (涅槃經 卷 八)〉

爲欲化度世間故
위욕화도세간고

(계속)*